

# I 응급상황시 대처요령

사고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119와 환자를 신속히 연결해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.

무조건적인 환자의 병원이송이 아니라 위험지역의 환자를 접근가능하고,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고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것이 중요함

## 1. 응급상황인지 아닌지 확인한다.

### 응급상황 시 고려할 점

자기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지 않는다.

주변에 기름이나 가스같은 위험물질이 있는지 확인한다.

혼자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.

## 2. 무엇을 할 것인지 알아본다.

### 환자의 상태 파악

### 응급상황 시 우선 순위

현장 상황 및 주변 환경이 안전한지 파악한다.

환자 상태를 확인한다.

응급한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제공한다.

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.

환자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생각되면 **119**에 구급차 요청

**반드시 119에 연락하여 빨리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응급 상황**



중앙응급의료센터



중앙응급의료센터  
Nat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

- ★ 기도폐쇄    ★ 분만
- ★ 마비환자   ★ 경련환자
- ★ 호흡곤란이나 숨을 쉬지 않는 경우
- ★ 중독환자
- ★ 심장마비
- ★ 물에 빠졌을 때
- ★ 심장질환이나 흉통
- ★ 심한 화상
- ★ 의식이 없는 경우
- ★ 전기 손상
- ★ 심한 출혈
- ★ 자살기도
- ★ 척추손상이 의심되는 경우

### 3. 구급차를 부른다.

응급상황 시 사람들은 당황하여 구조요청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.

구조요청을 하지 않고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이송하는 경우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.

### 응급환자를 신고할 때 천천히 또박또박 전달해야하는 사항

- ★ 환자가 발생한 위치,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알려준다.
- ★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위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려준다.
- ★ 주위의 위험요소 유무 : 화재, 사고, 위험물질 등을 정확히 알림
- ★ 환자의 수를 정확히 알려준다.

### 4.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긴 후 응급처치를 실시한다.

대부분의 생명구조 활동은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응급조치를 취했을 경우에 효과가 크다. 즉, 주위에 있는 사람의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가장 바람직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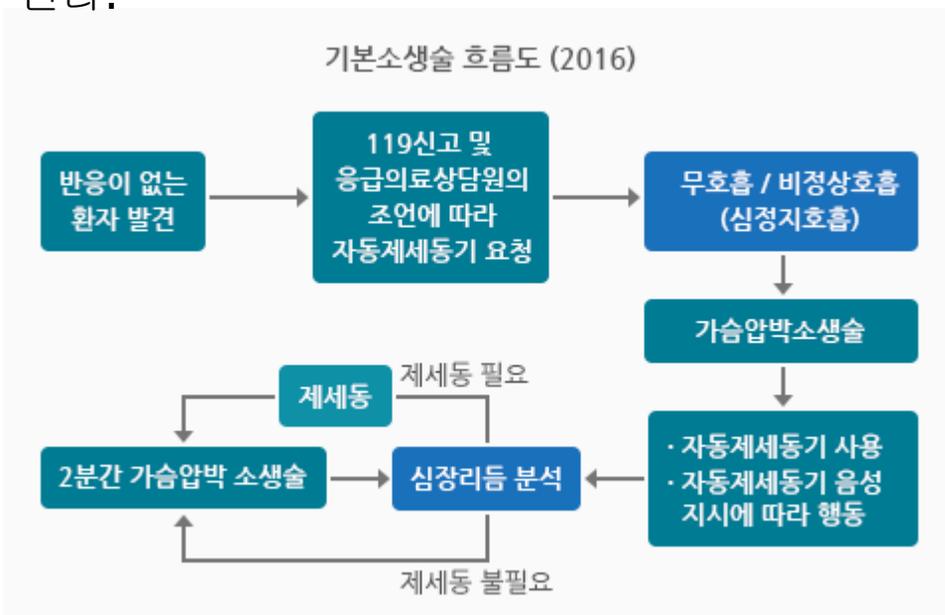
## II 기본응급처치

###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(AED)

#### (1) 심폐소생술(CPR) 이란?

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응급처치이다.

일반인이 심정지 환자를 발견 했을 때 그림과 같은 흐름도로 구조를 진행하면 된다.



## (2) 심폐소생술(CPR) 방법

### 1) 심정지 및 무호흡 확인

양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걸고 눈과 귀로 심정지 및 무호흡 유무를 확인한다.

(반응과 호흡이 있으면 심정지 아님)

### 2) 도움 및 119신고 요청

주변사람에게(꼭 집어서) 119신고를 부탁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요청한다.

### 3) 가슴압박 30회 시행

환자의 가슴 중앙에 각지킨 두손으로 몸과 수직이 되도록 압박한다. 압박은 성인기준 5cm 이상 1분에 100 ~ 120회 이상의 속도로 압박한다

### 4) 인공호흡 2회 시행

코를 막고 구조자의 입을 완전히 밀착하여 정상호흡을 약 1초 동안 2회 숨을 불어 넣는다.

(인공호흡이 어려울 경우 가슴압박을 지속적으로 시행)

### 5) 가슴압박, 인공호흡 반복

이후에는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한다.

## (3) 자동심장충격기(AED) 란?

자동심장충격기(AED)란 심실세동(심장의 박동에 의해서 심실의 각 부분이 불규칙적으로 수축하는 상태)환자들에게 극히 짧은 순간에 강한 전류를 심장에 통과시켜서 대부분의 심근에 활동전위를 유발하여 심실세동이 유지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심실세동을 종료시키고 심장이 다시 정상적인 전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.

## (4) 자동심장충격기(AED) 사용법



자동심장충격기(AED)를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놓은 뒤에 전원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켜다.



준비된 자동심장충격기(AED)의 패드를 부착부위에 정확히 부착한다.

**패드1 :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 부착**  
**패드2 : 왼쪽 젖꼭지 옆 겨드랑이 부착**

\* 패드와 자동심장충격기 본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연결하며, 패드 부착부위에 이물질이 있다면 제거한다.

"분석 중...." 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환자에게서 손을 떼다.

\* 자동심장충격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"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,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십시오" 라는 음성 지시가 나온다.



"쇼크 버튼을 누르십시오" 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점멸하고 있는 쇼크 버튼을 눌러 자동심장충격을 시행한다.  
 \* 쇼크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
자동심장충격을 시행한 뒤에는 즉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비율을 30 : 2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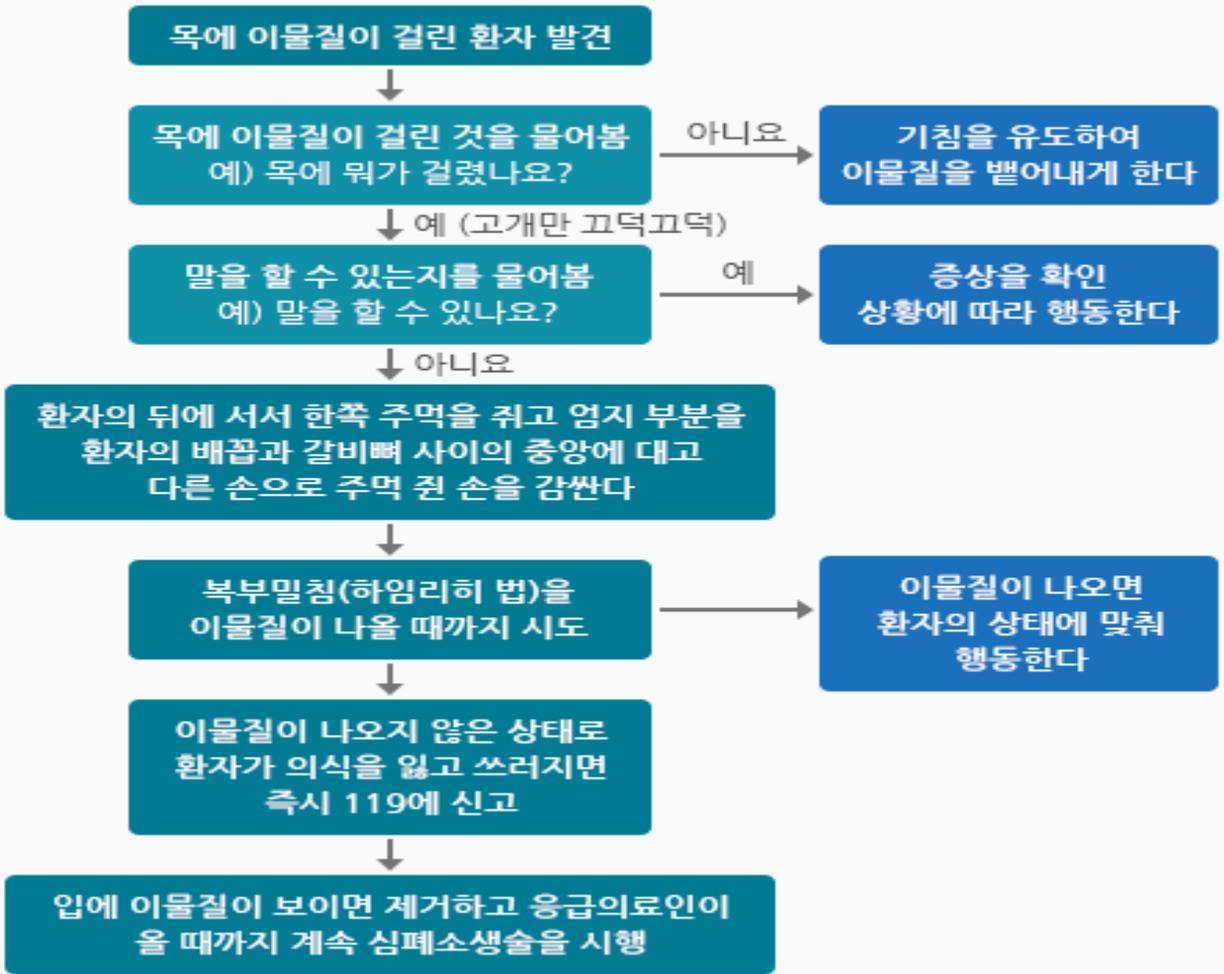
\* 자동심장충격기는 2분마다 심장리듬 분석을 반복해서 시행하며,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과 심폐소생술 시행은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.



## 참고사항

**성인&소아 기도폐쇄 응급처치 (하임리히법)**

**기도폐쇄 처치 흐름도**



### 1. 상태체크 및 119신고 요청

환자가 숨쉬기 힘들어 하거나 목을 감싸 괴로움을 호소할 경우 기도폐쇄로 판단하고 주변에 119에 신고를 요청한다.

### 2. 하임리히법 실시 - 의식이 있는 경우

환자의 등 뒤에 서서 주먹을 쥔 손의 엄지손가락 방향을 배 윗부분에 대고 다른 한 손을 위에 겹친 후 환자의 배꼽에서 명치 사이의 배 부위를 두 손으로 위로 쓸어올리듯 강하게 밀어 올려서 이물을 제거하고 이물이 밖으로 나왔는지 확인한다.

\* 임신한 여성이나 비만이 심한 사람의 경우 가슴부위를 밀어낸다.



### 주의사항



하임리히법은 복부에 강한 압력을 주어 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. 따라서 기도의 이물을 빼내었다고 해도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복부 장기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기도폐쇄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시행하지 않는다.